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북한 대표 불참에 대한 논평

오늘 아침 7시 45분, 7명의 영접위원들이 판문점으로 가는 버스 속에서 출발 직전, 북한 대표의 불참 소식을 들었다. 북한 대표자들과 발표자들의 명단까지 도착한 마당에, 북한 측의 갑작스런 불참 소식은 무척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운 것이다.

이번 연대회의는 남북한, 일본, 필리핀, 대만등 아시아 각 국의 대표들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한 자리에 모여, 민간위로기금으로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은폐하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법적인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려는 목적을 가진 중요한 국제회의이다. 우리는 특히 해방 50주년을 맞아, 같은 민족으로서 남북한 여성이 함께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있게 생각했으며, 특히 그동안 냉각되었던 남북 관계를 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정대협은 모든 회의 준비를 마쳤으며, 회의는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1995. 2.26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

日本軍「慰安婦」問題 アジア連帯会議 北朝鮮^{*}代表不参加についての論評

* 原文は
「北韓」

本日朝、7時45分、7名の出迎いの委員たちが板門店に
向って出発する直前、バスの中で、北朝鮮代表不参加の
ニュースを聞いた。北朝鮮代表者と発表者名簿まで届い
ているところで突然の不参加のニュースは私たちに失望
させる残念なことであった。

今回の連帯会議は日本、韓国、朝鮮、フィリピン、台湾等
アジア各国の代表たちと日本軍「慰安婦」被害者が一堂に会して
民間「見舞金」基金によって、日本軍「慰安婦」犯罪をおおい
隠そうとする日本政府の方針に対して強く批判し、法的な
賠償と謝罪を要求しようという目的をもつ重大な国際会議で
ある。私たちは、特に、解放50年を迎え、同じ民族として南
北女性がとものこの問題に立ち向うことに意味があると
考え、特にこの間、冷えていた南北の関係を温め上げる契機となる
ことを期待していた。挺身隊協議会会議を予定の日程通り進行する。